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의 '부분
이름'
'Partial Name'
Written in
Hangeul
among Wood
Block Printed
Korean
Classic Novels

박수린
Park Surin
박지나
Park Jina

주저자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석사과정
Main Author
M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강사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용어 설명
 - 연구 범위와 방법
-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 연구와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 비교
 - 방각판본을 모티프로 삼은 한글 폰트 개발 현황
 -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 용어 사용 현황
 - 한글 활자 디자인의 한글 글자체 용어 사용 현황
-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글자체의 '부분 이름' 쓰임 비교
 - 연구자별 용어 사용
 - 용어 사용의 차이와 원인 분석
-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와 형태 서지학의 상호보완성
 -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와 형태 서지학의 상호분석 결과
 - 한글 활자 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과 학제 간 연구의 전망
- 결론

요약

연구자는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방각판본 『경신록언해』를 원전으로 세로쓰기용 활자 ‘서각’을 작업하고 출시했다. 작업 및 연구 과정에서 참고한 형태 서지학의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 연구들은 활자 ‘부분 이름’ 조차 통일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형태 서지학의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의 ‘부분 이름’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에서 시영하는 ‘부분 이름’ 간의 유사점,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부분 이름’에 해당하는 용어 및 서술을 목록화해 분석하고,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을 비교하여 도표화하고, 두 분야 간의 유사점을 탐구하고, 한글의 조형을 낱낱이 세분화해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명칭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의 융합 연구의 필요성과 상보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분야의 교류가 더 원활해진다면,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한글 글자체’에 연구 방식을 적용해 다학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한글디자인, 한글활자디자인, 방각본, 형태서지학, 방각본체, 경판본, 완판본

Abstract

Since 2022, I have been working on a vertical writing typeface called <Seogak> based on the woodblock edition of *Gyeongsinrok-Eonhae*. During my investigation, I encountered difficulties due to the inconsistent use of Partial Names in classical novels' woodblock editions in formal bibliographies. It served as a strong motivation for my study. I have examined the Partial Names of Korean typefaces in classical novels' woodblock edition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 started by compiling all the Partial Names from the sources, then analyzed the terms and descriptions associated with them in the formal bibliography and type design by comparing and organizing them to give them accurate names and describe them in detail. This process highlighted the need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formal bibliography and Korean-type design to enhance research outcomes.

Keywords

Hangeul Design, Korean Typeface Design, Wood Block Printing, Physical Bibliography, Wood Block Printing Type, Seoul Block Prints, Jeonju Block Prints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에서 명명되는 ‘부분 이름’¹⁾에 대한 고찰이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글의 조형은 시대별로, 계통별로 다분화되었기 때문에, 한글의 조형을 낱낱이 세분화해 설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한글 활자 디자인 중 과거의 문화유산의 활자들을 참고하고 유물의 시각적 특징을 모티프로 활자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글 활자 디자인은 주로 원전으로 삼은 글자를 복각 혹은 재해석한다. 그리고 과거의 문화유산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유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학술 정보를 참고하는데, 주로 형태 서지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판본, 간행 시기의 요소들을 참고해 원전으로 삼을 유물들을 탐구한다.

연구자는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방각본 『경신록언해』²⁾를 원전으로 세로쓰기용 활자 ‘서각’³⁾을 작업하고 출시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가 방각판본과 방각본체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형태를 분석하고, 경판과 완판, 안성판본의 판각소들에 대해 조사했다. 방각본의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직 한글 활자 디자인에서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태 서지학의 연구의 경우는, 한글 글자체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각본에 대한 역사적 맥락의 연구 혹은 다른 연구로 이어지는 판단 요소로서의 기초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방각판 고전소설은 조선 후기에 상업적으로 출판된 그 시대의 한국 미학과 한글 글자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방각판본 고전소설의 한글 글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형태 서지학⁴⁾적 측면에서 실증 연구자료로서만 이루어졌고, 한글 활자 디자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날 서로 다른 학제가 융합하여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 고문헌 자료들은 디지털과정을 거쳐 아카이빙되어 기초자료로 다양한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문헌의 한글 글자체도 새롭게 디지털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노경희(2022)는

1) ‘부분 이름’은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에 준용해 사용한 용어로, 낱글자를 이루는 낱자를 이루는 점과 획의 “구조와 표현, 행위와 결과, 글자체 양식에 따라 부르는 이름을 말한다.” 한글 글자체의 각 자소에서 (자음과 모음-닿자와 활자) 자소를 이루는 가로획과 세로획 혹은 그를 잇는 이음부나 각 부분이 끝나는 맺음부의 이름들이다. ‘부분 이름’은 시대나 양식에 따라 같은 부분일지라도 다른 이름을 갖기도 한다. [그림 1] 참고.

2) 방각본 『경신록언해』: 1880년, 발행지불명, 도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신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또 다른 도교서인 ‘단계적’에서 뽑은 두 조목을 더하여 이해한 책이다. 원간본은 양주 천보산의 불암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연구자가 참고한 본은 1880년 중간본이며, 원간본의 성격을 그대로 따르는 사찰판본의 양식을 띄는 방각판본이다. [그림

3] 참고.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T.1880.0000-20160331.OGURA_023,\(2024.8.11.\)](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T.1880.0000-20160331.OGURA_023,(2024.8.11.))

3) 세로쓰기용 활자 ‘서각’, (디자이너-박수린, 유통-오늘폰트), [그림 4] 참고.

4) 한국 도서관 협회에 따르면, 형태 서지학 분야는 책의 물리적 형태의 여러 특징과 그 변천 과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조사·비평·연구·종합하여 책의 간사(刊寫) 성격과 간사시기를 고증하고 그 우열을 식별시켜 주며 그리고 책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여 기술하는 학문 분야이다. 형태 서지학,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https://www.kla.kr/dictionary?menuIds=5,27,\(2024.7.\)](https://www.kla.kr/dictionary?menuIds=5,27,(2024.7.))

동근줄기 세로줄기/세로기둥

가로줄기/가로보 세운줄기

겹기둥 뺄침줄기 비김줄기

약국과 과선

곁줄기

세운줄기

심음줄기

이음줄기

곁침

[그림 1] 줄기를 기준으로 한 '부분 이름' 용어 이미지

「고문헌 자료의 형태서지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 물질성의 디지털화와 인문학적 해석」이라는 논문에서 형태 서지학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에 대해서 서책의 전문가들이 형태 서지학 연구를 진행할 때, 오랜 기간 축적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서체와 같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서체처럼 정밀성이 필요한 연구에서 디지털 원문을 이용해 식별과 판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글 글자체를 연구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이다. 그러나 두 분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한글 글자체를 연구한다.

먼저, 형태 서지학의 관점에서 한글 글자체는, 주 연구 대상이기보다는 여러 연구를 보조하기 위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된다. 형태 서지학은 한글 글자체의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책의 간기⁵⁾와 개각⁶⁾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필사자, 독자와 관련한 인문학적인 연구의 일부로 쓰이고 있다.

반면,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의 관점에서 한글 글자체는, 그 자체가 주 연구 대상이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 글자체의 구조, 공간, 표현 등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한글 글자체를 디자인하게 된다.

관점은 다르지만, 형태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 분야는 상보적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글 글자체의 역사적, 디자인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두 학문의 학제 간 상호 연구가 절실하지만, 아직 두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특히 활자의 '부분 이름'조차 통일되지 않아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글 글자체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한글 글자체의 조형에 대한 확장된 연구를 위해서는 용어와 명칭이 정리가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를 중심으로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 간의 상호 연구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용어통일에 대한 연구'로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에서 명명되는 '부분 이름'을 고찰하는 것으로, 특히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와 형태 서지학 간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형태 서지학의 대표적인 연구에서의 '부분 이름'과 한글 활자 디자인에서 '부분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두 분야에서 사용하는 '부분 이름'에 대해 유사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5) 간기(刊記): 동양의 간행본에서, 출판한 때·곳·간행자 따위를 적은 부분.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간기>, (2024.8.4.)

6) 개각(改刻): 도장이나 조각 따위를 고쳐 새김.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개각>, (2024.8.4.)

1.2. 용어 설명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연구이므로 전문용어 설명이 필요하다. 방각판본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용어를 [표 1]과 같이 정리했다.

용어	설명
방각본(坊刻本)	“방각은 조선 중후기 아래 민간 출판인들이 독서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책을 찍었던 출판의 형태를, ‘방각본’은 그렇게 찍어낸 전통 서책들을 일컫는 말이다.” ⁷⁾ 방각본이란 명칭은, 관판본(官版本)이나 사찰판본(寺刹版本) 등과 는 달리,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들 방각본 서책이 ‘사용 가치’라는 척도에서 출판된 것이 아니고 교환가치 즉 상품화하여 시장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출판되었다 ⁸⁾ 는 것을 시사한다. 즉, 방각본 서책은 민간에서 판매되던 서책의 형태를 말한다. 방각본은 크게는 경판, 완판으로 구분한다. 안성판본의 경우 경판본의 갈래로 분류한다.
간행(刊行) ⁹⁾	책 따위를 인쇄하여 발행함.
판본(版本) ¹⁰⁾	현재 형태 서지학에서는 ‘판본’이란 본래 목판본의 준말로 썼던 것인데, 인쇄술의 발달로 목판 이외에 다양하게 생산된 이들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필사자	목판을 새기기 위해 필요한 밑바탕인 판하본의 글씨를 쓰는 사람.
기필	획 시작의 부분 모양.
수필	붓 이동을 멈춰서 생긴 획의 끝부분 모양.
필서체	활자 중에서 글씨의 모습이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글자체. 글씨 모습의 활자 또는 인쇄물에 나타나는 글자체를 가르킨다. ¹¹⁾
인서체	특정한 목적(필요)에 맞춰서, 글씨 특징을 변형 또는 강조한 활자체. 활자를 제작하기 위해, 글자를 쓰고 새기는 과정에서 글씨의 모습을 벗어난 글자체. ¹²⁾
각자체(刻字體)	방각판본의 한글 글자체를 부르는 이칭으로,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 소고』에서 “각자체는 [자체3](각수가 판각 작업을 한 결과 판목에 남아 있는 서체)이어야 하지만, 판목의 부재로 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부득이 [자체4](판목을 가지고 인출장이 인행한 결과 판본에 나타나는 서체)를 각자체라고 한다. [자체4]는 판각의 흔적을 보여주는 각자체이다.” ¹³⁾
민체	스마트 윈도우, 라이프 지원 기기 등
각자장(刻字匠)	나무 판목에 글자를 새기는 각자(刻字)를 하는 장인.
서각(書刻)	글자를 나무, 돌, 등에 글자나 문양을 새기는 작업.
운필(運筆)	서예용어로 붓의 움직임을 의미.

[표 1] 용어 설명

- | | |
|--|---|
| <p>7) 김한영, 『안성판 방각본』, (참빛아카이브, 2013)</p> <p>8)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의 연구』, (문학사, 1981), p.22</p> <p>9) 간행,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6429&searchKeywordTo=3</p> <p>10) 판본, 역주조선왕조실록백과,</p> | <p>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판본(版本), (2024.5.4.)</p> <p>11)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활자공간, 2022), p.66</p> <p>12)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p.66</p> <p>13)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刻字體) 소고』, 『민족문화』, 28권, (한국고전번역원, 2005), pp.225-261</p> |
|--|---|

1.3.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각판본(坊刻版本)’의 명칭은 방각출판 내에서도 ‘목판으로 판각된 방각 한글고전소설 서책’으로 한정 짓기 위한 용어다. 방각을 목적으로 목판에 한글로만 판각된 고전소설 서책을 특정해 해당 용어를 시사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방각판본 한글 고전소설 속 한글 글자체를 연구한 이창현, 최영희, 김효정의 네 개의 논문 속 한글 글자체 ‘부분 이름’에 집중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창현, 최영희, 김효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지만, 방각판과 방각본에 대한 연구는 참고문헌으로 기록한 김한영, 김동욱, 김명준, 류탁일, 유춘동, 유우식, 이윤석, 이태영, 최영희, 홍윤표의 연구가 있다. [표 2]

저자	년도	논문명	학술지/단행본
1 김한영	2013	『안성판 방각본』	참빛아카이브
2 김동욱	1960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서울과 역사』, 8호, 서울역사편찬원
3 김동욱	1970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1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4 김동욱	1973	『방각본 소설 완판·경판·안성판의 내용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 61호
5 김명준	2013	『조선시대 글꼴의 변화 양상(1) - 한글판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8호,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6 류탁일	1990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7 류탁일	1981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의 연구』	문학사
8 유춘동, 유우식	2022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판본 간에 나타난 목판인쇄 특징의 차이점 관찰을 통한 간행 연대의 추정』	『보존과학회지』 38호, 제2권
9 이윤석	2010	『방각본 연구의 몇가지 문제』	『열상고전연구』, 31호, 열상고전연구회
10 이윤석	2022	『나손 김동욱 교수의 방각본 연구』	『근대서지』, 26호, 근대서지학회
11 이창현	1992	『경판방각소설의 변이에 대한 연구』	『인제논총』, 8호 2권, 인제대학교
12 이창현	2009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 문화』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학회
13 이태영	2013	『완판본의 개념과 범위』	『열상고전』, 38호, 열상고전연구회
14 최영희	2017	『조선시대 부모은중경 한글판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동양예술』, 34호, 한국동양예술학회
15 홍윤표	2007	『한글의 역사와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문헌적 가치』	『국어문학』, 43호, 국어문학회

[표 2] 방각본을 주제로 한 형태서지학 연구 목록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위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부분 이름’에 해당하는 용어 및 서술을 목록화해 분석하고자 한다. 형태 서지학의 ‘부분 이름’과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의 대응하는 용어들을 도표화하고, 용어 간의 유사점,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와 형태 서지학 간의 상호보완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 연구와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 비교

2.1. 방각판본을 모티프로 삼은 한글 폰트 개발 현황

방각판본 [그림 2]는 민간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책이었던 만큼,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도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던 출판물이다. 간행된 지역에 따라 글자체에 지역별 특색이 묻어나는 경향이 있다. 방각판본 고전소설은 1930년대 후반까지 유통¹⁴⁾은 되었지만,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는 170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사람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웠지만, 주목받지 못한 분야이다.¹⁵⁾

현재 방각판본을 원전 또는 모티프로 삼은 폰트 개발은 5건뿐이다. 5건의 폰트들은 모두 다른 방각본을 모티프로 삼았다. 1995년 ‘윤디자인’의 Yoon 우리목각, 1997년 ‘산돌’의 ‘sandoll 방각본’, 2014년 전주시 ‘완판체’, 2016년 하형원 디자이너의 ‘도용’, 2023년 박수린 디자이너의 ‘서각’이다. [그림 3], [그림 4]

‘윤디자인’의 ‘우리목각’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방각본체의 대중적인 인상을 담은 가로쓰기 서체로 나뭇결의 질감을 담았다. ‘산돌’의 ‘sandoll 방각본’은 세로쓰기였던 방각본을 가로쓰기 폰트로 만들면서 윗선 정렬을 가진 거친 질감의 폰트를 디자인했다. 전주시의 ‘완판체’는 전주, 완주 지방 완판본의 구조적, 공간적 표현적 특성을 살린 가로쓰기 폰트를 디자인했다. 독립 활자디자이너로는 하형원 디자이너와 이 연구의 연구자가 있다. 하형원은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경판본의 구조, 공간, 표현을 개성으로 삼은 반흘림 세로쓰기 폰트를 디자인했다. 연구자는 사찰판본 『경신록연해』[그림 5]의 구조, 공간, 표현을 살린 넉넉한 너비의 세로쓰기 폰트 ‘서각’[그림 6]을 디자인했다.

방각판본 고전소설의 한글 글자체는 균제미를 띄면서도 각자장이 서각한 글자마다의 생김새가 다르기에 판본별로 다양한 인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매력으로 방각판본의 ‘한글 글자체’를 원전 혹은 모티프로 작업해 출시한 폰트들이 출시되어 왔다. 시각적 모티프만을 글자체의 표현 방식에 적용해 서체를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고서의 글자체를 원전으로 삼아 뼈대를 디지털 방식으로 추출해 글자체의 구조를 따르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가 작업한 ‘서각’의 경우, 해당 방식으로 작업했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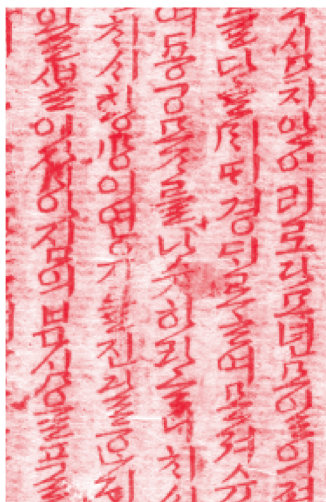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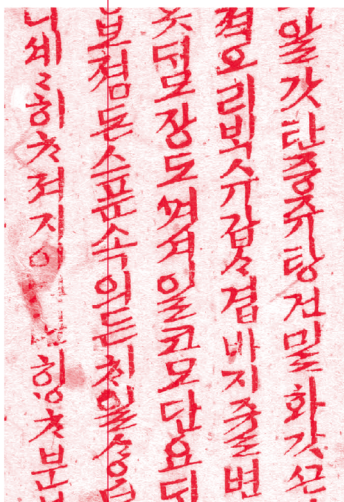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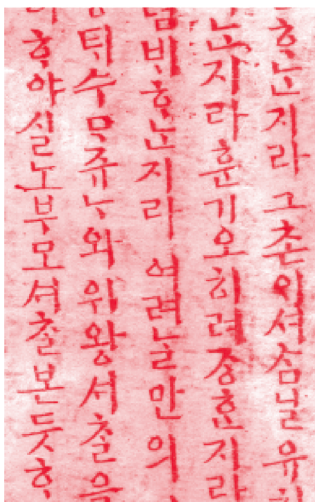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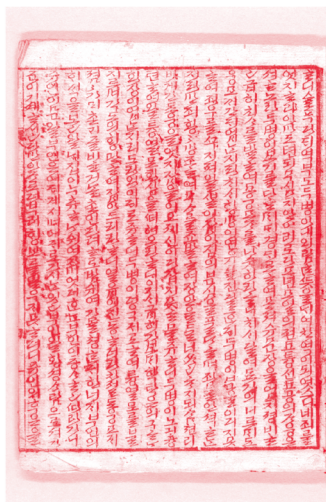
2.2.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의 용어 사용 현황

형태 서지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문학, 음성학, 서예학을 혼용하고 있고, 주로 서예 용어를 준용한다. 더불어 점, 획과 같은 창제 원리에 기반한 기초적인 용어에 행위와 관련한 용어가 더해지고 있다.

창제 이후, 한글은 익히 알려진 궁서체를 기반으로 ‘민체’, 각종 서예 필사체,

14) 이태영, 『완판방각본의 유통연구』, 『열상고전연구』, 61권, (열상고전연구회, 2018), pp.143-171
 15) 그간 형태 서지학에서 연구된 ‘한글 글자체’는 서책의 간기와 개각관련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판단 요소, 또는 필사자, 독자와 관련한 인문학적 연구의 일부였다. 주 연구 대상이기 보다는 여러 연구를 보조하기 위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그림 2] 완판, 안성판, 경판 한글 소설 비교 이미지, (완판 '도용전', 경판 '도용전', 안성판 '심청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① 나무 활자가 선사하는
거친 질감과 자연스러운 매력

② 초록빛 고래수염과 높이뛰는 황새다리

③ 전주완판본

④ **말은 빛으로**
고요한 세상

⑤ 새기어 남기는
마음으로.

[그림 3] ① 1995년 윤디자인 'Yoon 우리목각'

② 1997년 산돌 'Sandoll 방각본'

③ 2014년 전주서 '전주완판제'

[그림 4] ④ 2014년 하형원, '도용'

⑤ 2024년 박수린, '서각'



[그림 5] 『경신록언해』, (방각판본, 1880),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그림 6] 세로쓰기용 활자 '서각', (디자이너-박수린, 유통-오늘폰트)



[그림 7] 한글 활자 디자인에서의 고문헌을 원천으로 하는 글자 뼈대추출 작업 이미지



목판과 금속활자 등 다양한 발전을 해왔다. 이에 따라 “붓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행위와 결과에 따른 이름, 점과 선으로 구성된 한글 구조와 표현에 따른 이름, 필서체와 인쇄체에 따른 이름, 획과 줄기의 성질 차이에 의한 다른 이름, 달라지는 구조에 따른 이름들이 모두 세분되어야 한다.”¹⁶⁾ 그러나 이창현, 최영희, 김효정과 같은 학자들의 형태 서지학 연구에서의 ‘부분 이름’ 사용은 한글 활자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부분 이름’보다는 글자의 조형, 즉 낱글자를 구성하는 낱자들의 생김새 설명이 주이다.

이창현의 연구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 ‘가로줄기, 세로줄기’와 같이 보편적 용어¹⁷⁾를 주로 사용했다. 더불어 획, 보, 그리고 기둥과 같은 용어가 아닌 ‘줄기’¹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최영희의 연구에서는 ‘기필처, 수필처’, ‘초성, 중성, 종성’, ‘획’, ‘합자’, ‘모음자’를 사용했다. 앞선 이창현의 연구와 동일하게 보편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필처, 수필처’, ‘획’과 같은 서예학 용어를 사용했다.¹⁹⁾ 마지막으로 김효정의 연구에서는 ‘가로획, 세로획, 점획’, ‘초성, 중성, 종성’, ‘1획, 2획, 3획’, ‘횡모음, 종모음’을 사용했다. 이창현, 최영희의 연구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다 더 세세한 부분을 지칭하기 위해 ‘1획, 2획, 3획’과 같은 획 명칭을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세 연구자가 주되게 사용된 용어는 보편적 용어와 더불어 서예학 용어, 그리고 세부 명칭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2.3.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의 용어 사용 현황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한글 글자체의 ‘부분 이름’이란 한글 활자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낱글자를 이루는 낱자를 이루는 점과 획의 ‘구조와 표현, 행위와 결과, 글자체 양식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다.’²⁰⁾

한글 활자 디자인에서 연구하는 한글 글자체는 크게 역사적 맥락에서의 분류, 형태적 맥락에서의 구조, 공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서술하는 용어 정리 서적은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한글의 글자표현』, 『한글글꼴용어사전』, 『한글디자인 교과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가 있다.²¹⁾

위 서적들의 기초가 되는 연구는 1979년 발족한 ‘글꼴모임’의 연구를 모아 낸 김진평의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이다.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에 수록된 석금호(1990)의 ‘글자꼴 관련 용어 정리와 해설’은 1982년 ‘글꼴모임’에서 한글의 글자표현에 관한 용어들을 수집 및 정리하고 부족한 것들을 새로 만들어 펴낸 용어의 안과 제안받은 의견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용어를 정리한 연구다.²²⁾

이후 2000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한글글꼴용어사전』과 2009년,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의 『한글디자인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한글글꼴용어사전』은 폰트 및

16)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p.104

17) 초등교육 과정에서 한글의 창제원리를 설명할 때에 ‘초성, 중성, 종성’을 사용함에 따라 보편적 용어라 설명했다.

18) ‘줄기’란 획과 대응할 수 있는 용어이다.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에서는 획의 동세가 느껴지는 경우엔 획이라고, 반대의 경우엔 줄기라 표현한다. 획은 ‘활물’이기에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획과 줄기를 나눌 수는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고딕과 명조의 경우엔 전자를 줄기, 후자를 획이라 칭한다.

19) ‘합자’와 ‘모음자’는 제자원리를 따른 일반적 용어라 생각할 수 있다. 합자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합자원리, 모음자의 경우, 모음 글자들을 지시하는 말이다.

20)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p.104

21) 한글 활자 디자인과 관련한 다수의 저서들이 있지만, 용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형식으로 목록화한 책들만 언급했다.

22) 김진평, 『한글 글자꼴 기초 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90), p.401

한글과 관련한 다분야의 용어를 정리하여 목록화한 사전이었으며, 한글의 형태적인 ‘부분 이름’에 대한 정보는 일부에 그쳤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다섯 권의 연구서적 중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서적은 『한글디자인 교과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이다. 두 권의 출간 시기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에 두 권의 공통된 저자인 이용제의 2022년에 출간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분 이름’을 서술하고자 한다.²³⁾

3. 방각판본 고전소설의 ‘부분 이름’ 쓰임 비교

3.1. 연구자별 용어 사용

3.1.1.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소고』

다음은 이창현의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소고』 중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를 서술하는 용어를 목록화하고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와 대응한 표이다. [표 3]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소고』의 ‘부분 이름’ 용어 사용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 대응
1	초성인 자음에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오른쪽에 붙이는가?	가로 모임꼴
2	초성인 자음에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아래쪽에 붙이는가?	세로 모임꼴
3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오른쪽에 덧붙이는 경우, 가로줄기를 먼저 쓰는가?	가로 모임꼴, 결합기(획)가 안을 향하는 경우 (거)
4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오른쪽에 덧붙이는 경우, 세로줄기를 먼저 쓰는가?	가로 모임꼴, 결합기(획)가 밖을 향하는 경우 (가)
5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아래쪽에 덧붙이는 경우, 세로줄기를 먼저 쓰는가?	세로 모임꼴. 세로줄기(획)이 있는 경우 (고)
6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아래쪽에 덧붙이는 경우, 가로줄기를 먼저 쓰는가?	세로 모임꼴. 내림줄기(획)이 있는 경우 (구)
7	받침이 있는가?	받침글자
8	받침이 없는가?	민글자
9	ㅅ, ㅈ, ㅊ이 필획의 끝부분	비긴줄기(획)의 맺음
10	‘ㅅ’의 왼삐침줄기	‘ㅅ’의 삐침줄기(획)
11	‘ㅅ’의 오른삐침줄기	‘ㅅ’의 비긴줄기(획)
12	‘ㄴ’의 세로줄기	‘ㄴ’의 세운줄기(획)
13	‘ㄴ’의 가로줄기	‘ㄴ’의 가로줄기(획) / ‘ㄴ’의 가로보
14	‘ㄹ’의 왼세로줄기	‘ㄹ’의 왼세운줄기(획)
15	‘ㄹ’의 오른세로줄기	‘ㄹ’의 오른세운줄기(획)
16	‘ㅅ’의 오른삐침줄기	‘ㅅ’의 비긴줄기(획)
17	‘ㅅ’의 왼삐침줄기	‘ㅅ’의 삐침줄기(획)

[표 3]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소고』 용어 사용 목록표

23) 현재 한글을 다루는 학문들의 공통된 용어의 배경이 되는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의 용어적 개념을 따르고 있는 연구인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를 기준으로 ‘부분 이름’ 용어를 설명하고, 연구자 역시 연구를 통해서 통일된 용어를 가지고 후속연구를 하고자 한다.

3.1.2. 이창현: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연구』

다음은 이창현의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연구』 중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를 서술하는 용어를 목록화하고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와 대응한 표이다. [표 4]

이창현: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연구』의 ‘부분 이름’ 용어 사용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 대응
1 ‘ㄱ’의 가로줄기가 시작되는 부분	‘ㄱ’의 가로획의 머리부분
2 ‘ㄷ’의 마지막 줄기 끝	출자 ‘ㄷ’의 곁줄기(획)의 맺음
3 ‘ㄷ’의 가로줄기	‘ㄷ’의 곁줄기(획)
4 ‘ㄴ’의 세로줄기	‘ㄴ’의 세운줄기(획)
5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아래쪽에 덧붙이는 경우, 세로줄기를 먼저 쓰는가?	세로 모임꼴, 세로줄기(획)이 있는 경우 (고)
6 ‘간’의 받침 ‘ㄴ’의 세로줄기	‘간’의 받침달자 ‘ㄴ’의 세로줄기(획)
7 모음 ‘ㅠ’의 가로줄기	출자 ‘ㅠ’의 가로줄기(획)/ 출자 ‘ㅠ’의 가로보
8 모음 ‘ㅠ’의 왼세로줄기	출자 ‘ㅠ’의 왼심은줄기(획)
9 모음 ‘ㅠ’의 오른세로줄기	출자 ‘ㅠ’의 오른심은줄기(획)
10 모음 ‘꺠’를 구성하는 ‘ㄱ’의 가로줄기	출자 ‘꺠’의 이음줄기(획)/ 출자 ‘꺠’의 이음보
11 모음 ‘꺠’를 구성하는 ‘ㄷ’의 가로줄기	출자 ‘꺠’의 곁줄기(획)
12 복모음	섞임 모임꼴
13 받침 ‘ㄴ’의 가로줄기	받침달자 ‘ㄴ’의 가로줄기(획)
14 ‘ㅅ’을 구성하는 왼뺨침줄기와 오른뺨침 줄기가 길이가 같다	대칭시옷
15 ‘ㅅ’을 구성하는 왼뺨침줄기	‘ㅅ’을 구성하는 뺨침줄기(획)
16 ‘ㅅ’을 구성하는 오른뺨침줄기	‘ㅅ’을 구성하는 비긴줄기(획)
17 앞의 글자의 마지막 줄기 끝	앞의 글자의 마지막 획의 맺음
18 ‘전’의 ‘ㄷ’의 윗가로줄기	‘전’의 윗곁줄기(획)
19 ‘전’의 ‘ㄷ’의 아래가로줄기	‘전’의 아래곁줄기(획)
20 ‘전’의 ‘ㄷ’의 세로줄기	‘전’의 세로줄기(획) / ‘전’의 세로기둥
21 초성 자음 ‘ㄱ’의 가로줄기	첫달자 ‘ㄱ’의 가로줄기(획)
22 초성 자음 ‘ㄱ’의 왼뺨침줄기	첫달자 ‘ㄱ’의 내림줄기(획)

[표 4] 이창현의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연구』 용어 사용 목록표

3.1.3. 최영희: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다음은 최영희의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중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를 서술하는 용어를 목록화하고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와 대응한 표이다. [표 5]

최영희: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의 ‘부분 이름’ 용어 사용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 대응
1 ‘ㄱ’의 두 세로 모음 획	출자 ‘ㄱ’의 겹세로줄기(획)/ 출자 ‘ㄱ’의 겹세로기둥
2 ‘ㄴ’의 두 점획	‘ㄴ’의 두 세운줄기(획)
3 가로모음자	세로 모임꼴 출자
4 가로모음 획	세로 모임꼴의 가로줄기(획)/ 세로 모임꼴의 가로보
5 기필처	뎨 티을
6 ‘ㄷ’ 가운데에 ‘ㄴ’획이 있는 ‘ㅌ’	‘간’의 받침당자 ‘ㄴ’의 세로줄기(획)
7 ‘ㄷ’ 위에 ‘ㄴ’획이 있는 ‘ㅌ’	누운 티을
8 모음 ‘ㄱ’의 두 세로획	출자 ‘ㄱ’의 겹세로줄기(획)/ 출자 ‘ㄱ’의 겹세로기둥
9 문자 ‘ㅌ’	출자 ‘ㅌ’
10 ‘ㅌ’자의 가로획	‘ㅌ’자의 걸침줄기(획)
11 상하합자형	세로 모임꼴
12 수필처	맺음
13 세로모음자	가로 모임꼴 출자
14 세로모음자의 기필처	머리
15 세로모음 획	가로 모임꼴의 세로줄기(획)/ 가로 모임꼴의 세로기둥
16 세로 중성모음	가로 모임꼴의 출자
17 오른쪽 점획	오른쪽 걸점(획)
18 좌우하합자	가로 모임꼴 받침글자
19 좌우합자형	가로 모임꼴 민글자
20 좌우합자 세로 모음	가로 모임꼴 출자
21 ‘ㅊ’의 상위 점획	‘ㅊ’의 하늘점
22 초성	첫당자
23 초중성합자	민글자
24 초중중성합자	받침글자
25 초, 중, 중성 결구에 따른 자형	첫당자, 출자, 받침당자의 합자에 따른 자형

[표 5] 최영희의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용어 사용 목록표

3.1.4. 김효정: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

다음은 김효정의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 중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를 서술하는 용어를 목록화하고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와 대응한 표이다. [표 6]

	김효정: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의 '부분 이름' 용어 사용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 대응
1	'ㅣ'의 아래부분	'ㅣ'의 맺음
2	'ㄴ'의 세로점획	세운점/ 세운줄기 / 세운획
3	'ㄴ'의 세로길이	심은획(점)의 길이
4	'가'의 초성 'ㄱ'의 가로획	'가'의 첫당자 'ㄱ'의 가로줄기(획)
5	'가'의 초성 'ㄱ'의 세로획	'가'의 첫당자 'ㄱ'의 내림줄기(획)
6	'가'의 중성 'ㅏ'의 점획	'가'의 결점
7	'가'의 중성 'ㅑ'의 점획	'가'의 결점
8	'녀'의 중성 'ㄷ'의 가로점획	'녀'의 겹결점(획)
9	'납'의 중성 'ㅂ'	'납'의 받침당자 'ㅂ'
10	'납'의 중성 'ㅂ'의 가로점획	'납'의 받침당자 'ㅂ'의 걸친획/ '납'의 걸침
11	'도'의 중성 'ㅇ'의 세로점획	'도'의 세운점(획)
12	'두'의 중성 'ㄴ'의 세로점획	'두'의 심은획(점)
13	'르'의 1획	'르'의 가로획과 내린획/ '르'의 'ㄹ'부분
14	'르'의 2획	'르'의 가운데 가로줄기(획)
15	'르'의 3획	'르'의 세로획과 굵림 그리고 가로획 / '르'의 'ㄹ'부분
16	'라'의 중성 'ㅏ'의 세로획	'라'의 세로줄기(획) / '라'의 세로기둥
17	'라'의 초성 'ㄹ'의 1획	'라'의 첫당자 'ㄹ'의 가로획과 꺾임 그리고 세로획/ '라'의 첫당자 'ㄹ'의 'ㄱ'부분
18	'라'의 초성 'ㄹ'의 2획	'라'의 첫당자 'ㄹ'의 가운데 가로줄기(획)
19	'라'의 중성 'ㅏ'의 세로획	'라'의 활자 'ㅏ'의 세로줄기(획)/ '라'의 세로기둥
20	'랍'의 중성 'ㅂ'의 1획	'랍'의 받침당자 'ㅂ'의 왼세로줄기(획)
21	'랍'의 중성 'ㅏ'의 점획	'랍'의 활자 'ㅏ'의 결점(획)
22	'를'의 초성	'를'의 첫당자
23	'를'의 중성	'를'의 활자
24	'를'의 중성	'를'의 받침당자
25	'를'의 중성 가로획	'를'의 활자 'ㄹ'의 가로줄기(획)/ '를'의 가로보
26	'를'의 가로획의 기필 부분	'를'의 가로보의 머리(기필)
27	'를'의 가로획의 수필 부분	'를'의 가로보의 맺음(수필)
28	'뫓'의 'ㄴ'의 길이	'뫓'의 활자 'ㄴ'의 가로획(가로보)의 길이
29	'뫓'의 'ㄴ'의 점획길이	'뫓'의 활자 'ㄴ'의 세운점(획)의 높이
30	'변' 'ㅑ'의 점획	'변'의 활자 'ㅑ'의 겹결점(획)
31	'보'의 중성 'ㅇ'의 세로점획	'보'의 활자 'ㅇ'의 세운점(획)
32	'보'의 초성 'ㅂ'의 가로점획	'보'의 첫당자 'ㅂ'의 걸친점(획)/ '보'의 걸침
33	'보'의 모음 'ㅑ'의 가로점획	'보'의 활자 'ㅑ'의 겹결점(획)
34	'ㅑ'의 좌우대칭 형태	대칭시옷

	김효정: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의 '부분 이름' 용어 사용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 대응
35	'ㅑ'의 초성 'ㅑ'이 좌사향으로 서선을 길게 그어	'ㅑ'의 첫당자 'ㅑ'의 삐침줄기(획)
36	'ㅑ'의 초성 'ㅑ'의 1획	'ㅑ'의 첫당자 'ㅑ'의 삐침줄기(획)
37	'ㅑ'의 초성 'ㅑ'의 2획	'ㅑ'의 첫당자 'ㅑ'의 비긴줄기(획)
38	'세'의 세로획	'세'의 활자 'ㅑ'의 겹세로획(세로기둥)
39	'ㅑ'의 'ㅑ'의 1획	'ㅑ'의 첫당자 'ㅑ'의 삐침줄기(획)
40	'ㅑ'의 'ㅑ'의 2획	'ㅑ'의 첫당자 'ㅑ'의 비긴줄기(획)
41	'ㅑ'의 중성 'ㅑ'의 가로점획	'ㅑ'의 활자 'ㅑ'의 겹결점(획)
42	'술'의 'ㄴ'의 점획	'술'의 활자 'ㄴ'의 겹심은획(점)
43	'술'의 'ㄹ'의 1획	'술'의 받침당자 'ㄹ'의 가로획과 꺾임 그리고 내린획/ '술'의 받침당자 'ㄹ'의 'ㄱ'부분
44	'야'의 중성 'ㅑ'의 가로점획	'야'의 활자 'ㅑ'의 겹결점(획)
45	'양'의 'ㅑ'의 점획	'양'의 활자 'ㅑ'의 겹결점(획)
46	'옛'의 중성 'ㅑ'	'옛'의 활자 'ㅑ'
47	'옛'의 중성의 세로획	'옛'의 활자의 세로줄기(획)/ '옛'의 세로기둥
48	'용'의 중성 'ㅇ'의 1획	'용'의 활자 'ㅇ'의 왼세운점(줄기, 획)
49	'용'의 중성 'ㅇ'의 2획	'용'의 활자 'ㅇ'의 오른세운점(줄기, 획)
50	'원'의 중성 'ㄴ'의 1획	'원'의 활자 'ㄴ'의 이음줄기(획)/ '원'의 이음보
51	'원'의 중성 'ㄴ'의 2획	'원'의 활자 'ㄴ'의 뺀은획
52	'이'의 'ㅣ'	'이'의 활자 'ㅣ'의 세로줄기(획)/ '이'의 세로기둥
53	'정'의 중성 'ㅑ'의 점획	'정'의 활자 'ㅑ'의 겹결점(획)
54	중모음	가로 모임꼴 활자
55	중성 'ㅣ'	활자 'ㅣ'
56	중성 'ㅇ'의 우측	받침당자 'ㅇ'의 닫은획
57	중성 'ㄹ'의 가운데 서선	받침당자 'ㄹ'의 가운데 가로줄기(획)
58	중성 'ㄹ'의 마지막 획	받침당자 'ㄹ'의 'ㄴ'의 가로줄기(획)
59	중성 'ㄹ'의 2획	받침당자 'ㄹ'의 가운데 가로줄기(획)
60	중성 'ㄴ'	받침당자 'ㄴ'
61	중성 'ㄴ'의 우측 끝부분	받침당자 'ㄴ'의 맺음
62	중성 'ㄹ'의 1획	받침당자 'ㄹ'의 가로획과 꺾임 그리고 내린획 / 받침당자 'ㄹ'의 'ㄱ'부분
63	중성 'ㄹ'의 2획	받침당자 'ㄹ'의 가운데 가로줄기(획)
64	중성 'ㅑ'의 1획	받침당자 'ㅑ'의 세로줄기(획)
65	'쵸'의 'ㅑ'의 좌사향 수침획	첫당자 'ㅑ'의 삐침줄기(획)
66	초성 'ㅎ'의 첫 점획	첫당자 'ㅎ'의 하늘점
67	초성 'ㄴ'의 가로획	첫당자 'ㄴ'의 가로줄기(획)
68	초성 'ㅑ'의 가로획 수필부분	첫당자 'ㅑ'의 맺음부분

김효정: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의 '부분 이름' 용어 사용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 대응
69 '크'의 'ㄱ'의 더한 가로획	'크'의 첫닿자 'ㄱ'의 덧줄기(획)
70 '크'의 'ㄱ'의 세로획	'크'의 'ㄱ'의 내림줄기(획)
71 '큰'의 초성 'ㄱ'의 'ㄱ'에서 같고리	'큰'의 첫닿자 빠친키움의 빠침줄기(획)
72 '표'의 세로점획	'표'의 속점(획)
73 '퍼'의 'ㅍ'의 2획	'ㅍ'의 왼속점(획)
74 '퍼'의 'ㅍ'의 3획	'ㅍ'의 오른속점(획)
75 '평'의 초성 'ㅍ'의 세로점획	'평'의 첫닿자 'ㅍ'의 속점(획)
76 '평'의 초성 'ㅍ'의 1획	'평'의 첫닿자 'ㅍ'의 가로줄기(획)

김효정: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의 '부분 이름' 용어 사용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 대응
77 '평'의 초성 'ㅍ'의 2획	'평'의 첫닿자 'ㅍ'의 왼속점(획)
78 '필'의 중성 'ㄹ'의 1획	'필'의 받침닿자 'ㄹ'의 가로획과 꺾임과 내린획 / '필'의 받침닿자 'ㄹ'의 'ㄱ' 부분
79 '필'의 중성 'ㄹ'의 2획	'필'의 받침닿자 'ㄹ'의 가로줄기(획)
80 '한'의 초성 'ㅎ'의 점획	'한'의 첫닿자 'ㅎ'의 하늘점
81 '한'의 중성 'ㄴ'의 1획	'한'의 받침닿자 'ㄴ'의 세로줄기(획)
82 횡모음	세로 모임꼴

[표 6] 김효정의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 용어 사용 목록표

3.2. 용어 사용의 차이와 원인 분석

3.2.1. 이창헌: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소고』

위 연구는 1780년의 임경업전과 1847년의 전운치전을 통해 “18세기의 각자체에서 19세기의 각자체로 전환하는” 형태를 비교한 것이기에 검토 대상이 될 표본 글자를 설정하는 설정 기준에 대한 구조분석에 ‘부분 이름’이 사용되었다. ‘초성인 자음에 중성인 모음을 자음의 오른쪽에 붙이는가?’와 같이 분류체계를 설명하는 경우, 별도의 용어가 아닌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한 설명을 했다. 이는 ‘가로 모임꼴’이라는 한글 활자 디자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적인 용어로 길게 풀어 설명해야 하는 경우 한글 활자 디자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더욱 적합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창헌의 연구에서는 표본 글자로 설정된 ‘쇼’와 ‘쇼’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왼빠침줄기, 오른빠침줄기 같이 동일한 ‘빠침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다른 위치를 덧붙여 설명한다.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의 ‘부분 이름’에서는 빠친획과 비낀획으로 ‘ㅅ’획의 좌와 우를 설명한다.

3.2.2. 이창헌: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연구』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연구』은 완판본에 비해 흘림의 형태가 진한 경판본의 글자체 연구로 닿자와 홀자 간의 연결성에 집중한 ‘부분 이름’이 주이다. 이창헌이 말하는 ‘각자체’는 특성상, 판목에 새겨지는 과정에서 ‘붓의 흔적’에서 ‘판각의 흔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이 옮겨지고, 이에 따른 특성이 ‘각자체’에서 나타난다. 판각의 흔적에서 나타나는 ‘목흔’은 같은 글자이더라도 판본에 따라 유무가 갈리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홀자 간의 연결성, ‘목흔’과 관련된 특성을 가진 ‘부분 이름’의 언급이 주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편적 용어를 쓰되 각 낱자, 자소 안의 ‘부분 이름’에 대해 ‘무엇의 무엇’과 같은, 조사가 붙는 수식 관계의 용어를 쓰고 왼쪽, 오른쪽과 같은 방향성을 더해준다.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의 ‘부분 이름’의 경우, 위 연구는 대칭 글자가 없어 방향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칭을 이루어 좌우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만 좌, 우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부분’, ‘꼴’과 같은 위치나 부분을 특정하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경우, ‘부분 이름’은 ‘머리’, ‘맺음’과 같은 ‘부분 이름’을 쓸 수 있다.

3.2.3. 최영희: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방각본 서체에서 볼 수 있는 경판본, 완판본의 대표적인 인상과 형태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통해 궁중의 궁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널리 퍼져 사용됨을 시사한다. 글자를 구성하는 “획의 수평, 수직적 형태와 다양한 글자 배열”을 설명함에 따라 각 당자와 활자의 배열에 관한 용어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용어가 모두 나온다.

“ㄷ 가운데에 ‘ㅡ’ 획이 있는 ‘ㅌ’과 같이 문장으로 서술되는 용어처럼 보편적인 용어 혹은, 서술적인 문장으로 조형적 특징을 설명한다. ‘부분 이름’의 경우, 해당 용어는 ‘텐티울’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수필처’는 ‘부분 이름’에서도 동일하게 쓰이는 명칭이다. 명조 계열, 부리가 있는 글자체, 또는 붓의 물성이 표현된 경우에 붓의 첫머리가 시작된 부분을 ‘기필’, ‘기필부’, ‘기필처’라고 한다.

3.2.4. 김효정: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

“구운몽의 판본으로 성행했던 완판본과 경판본의 자형을 고찰하면서 도용전의 완판본 자형 또한 함께 비교한 연구이다.” 가나다순대로 자형을 살펴보고 서예 필법과 한글의 구조적, 조형적 형태를 모두 살펴 빈출자에 가까운 표본 글자의 ‘부분 이름’을 주로 서술한다. 이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해 세밀하고 다양한 ‘부분 이름’이 모두 서술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른 학자들의 연구 중 현재의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의 ‘부분 이름’, 용어와 가장 비슷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반면 타 연구자들과의 차이점은 가로획 또는 세로획이 많은 글자의 경우, 획을 순서별로 명명했다는 것이다. ‘ㄹ’의 1획, 2획, 3획과 같이 ‘운필’의 순서에 따라 용어를 사용했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은 성명학, 서예학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한다. 1획, 2획, 3획은 ‘부분 이름’에 해당하긴 하지만, 운필의 순서를 설명하는 용어에 가깝기에 이에 대한 한글 활자 디자인적 용어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4.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와 형태 서지학의 상호보완성

4.1.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와 형태 서지학의 상호분석 결과

이창현의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 소고』는 방각판본 속 한글 글자체를 ‘각자체’라고 이름 짓고, 시대별 흐름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특정 글자 ‘소, 쇼’에 집중해 ‘부분 이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정된 ‘부분 이름’을 설명했으며 ‘획’이 아닌, ‘줄기’를 주되게 사용했다. 또 다른 논문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 연구』는 붓이 옮겨가는 ‘묵흔’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날자, 자소 안의 ‘부분 이름’에 대해 ‘무엇의 무엇’과 같은, 조사가 붙는 수식 관계의 용어를 쓰고 왼쪽, 오른쪽과 같은 방향성을 더했다.

최영희의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는 획의 수평, 수직적 배열과 관련한 활자들의 연구가 추가 되었기에 대응하는 ‘부분 이름’ 또한 당자와 활자를 구성하는 모임꼴과 관련된 용어가 추가 되었다. 사용된 용어들은 ‘좌우합자형’, ‘상하합자형’, ‘기필처’, ‘수필처’와 같은 서예 용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김효정의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완판본을 중심으로』는 7부터 8까지 다양한 글자들을 살펴보는 연구였기에 당자와 활자, 그리고 모임꼴까지 이야기하는 다양한 용어 대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의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에 제일 가까운 ‘부분 이름’을 사용했으며, 예외적으로 가로획 또는 세로획이 많은 글자들의 경우, 형태 서술하는 ‘부분 이름’이 아닌, 운필의 순서를 함의하는 ‘1획’, ‘2획’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네 개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기 다른 학문 또는 양식을 따르는 용어들이다.

‘부분 이름’ 목록		‘부분 이름’ 목록		‘부분 이름’ 목록	
1	가로모임꼴	11	결점/결줄기/결획	20	결점/결줄기/결획
2	세로모임꼴	12	세운점/세운줄기/ 세운획	21	덧점/덧줄기/덧획
3	섞임모임꼴	13	심은점/심은줄기/ 심은획	22	하늘점
4	당자	14	속점/속줄기/속획	23	뺨은획
5	첫당자	15	내림줄기/내린획	24	답은획
6	받침당자	16	삐친점/삐친줄기/ 삐친획	25	민글자
7	홀자	17	비간점/비간줄기/ 비간획	26	받침글자
8	세로줄기/세로획/ 세로기둥	18	이음줄기/이음획/ 이음보	27	머리
9	겹세로줄기/겹세로획/ 겹세로기둥	19	걸침줄기/걸침획	28	맺음
10	가로줄기/가로획/ 가로보			29	굴림
				30	대칭시옷
				31	뎨 티을
				32	누운 티을

[표 7] 공통 ‘부분 이름’ 목록

위 연구들을 공통으로 대응하는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용어는 [표 7]과 같다.

위 연구들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모두 한글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으로 일관되게 대응 가능하다. 용어 비교를 통해 두 학문의 공통 연구 대상인 ‘한글 글자체’의 용어에 대한 상호 교차성이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 두 분야의 ‘한글 글자체’의 ‘부분 이름’이 선행적으로 통일된다면, 한글 글자체의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 글자체’를 통해 간행연대, 보각 및 개각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 서지학 분야에서 날자들의 ‘부분 이름’에 대한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의 용어를 적용 혹은 차용한다면 심도있고 확장된 연구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에서는 형태 서지학 연구에서 발견한 방각판본 고전소설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연구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글 글자체의 역사와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새로운 한글 글자체를 디자인하거나 기존의 한글 글자체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4.2. 한글 활자 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과 학제 간 연구의 전망

이창현, 최영희, 김효정의 연구는 개각, 판각의 여부를 연구하는 데에 한글을 판별 요소로 혹은, 방각판본의 한글의 조형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자별 사용 용어가 공통되지 않으며 사용된 용어들의 쓰임이 혼재되어 알맞은 ‘부분 이름’과 용어의 쓰임이 통일되어야 한다. 특히 운필에 따라 획의 강약이 강하게 나타나는 ‘ㄱ’, ‘ㅅ’의 삐친 줄기의 형태를 나타내는 ‘세로획’, ‘좌사향’과 같은 특정 부분에 대한 명칭의 모호성, 연구자마다 다른 당자와 홀자의 합자의 형태를 설명하는 용어들의 통일성이 우선으로 필요하다.

형태 서지학에서 준용한 서예 용어들은 서예의 특성상 필법 중심의 용어가 주가 되므로 세밀한 한글의 ‘부분 이름’에 대한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획, 2획과 같은 필순에 따른 명칭으로 한글의 ‘부분 이름’을 지시하고 있다. 김효정의 연구에서 사용한 1획, 2획, 3획은 부분을 지칭하고는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운동의 순서를 함의하고 있는 용어이기에 논의가 필요하다.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 분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한글 글자체를

연구하고 있지만, 한글의 조형이라는 공통된 추제를 연구함은 분명하다. 한글 글자체의 계통을 시작으로 세부적인 ‘부분 이름’까지 명칭을 정해 연구하고 있는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에서 방각판본을 비롯한 고문헌의 글자체 연구를 진행한다면 1차적으로는 시대별, 지역별 한글 조형의 다양성을, 2차적으로는 한글 글자체와 서지 정보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아낼 수 있고, 3차적으로는 한글 활자 디자인과 형태 서지학 간의 교류로 융합 연구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이창헌, 최영희, 김효정의 연구를 통해 형태 서지학에서의 방각판본 고전소설 한글 글자체의 ‘부분 이름’을 살펴보았다. 한글의 ‘부분 이름’에 집중해 한글의 구조와 조형을 연구하는 분야는 한글 활자 디자인 분야가 유일하다. 한글 글자체의 형태를 연구하는 형태 서지학 연구에 활자 디자인의 ‘부분 이름’ 사용을 적용 또는 차용해 용어의 통일을 추진한다면 선행, 후행 연구 간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각 연구 간의 공통된 ‘부분 이름’ 사용은 ‘줄기’, ‘초성’, ‘중성’, ‘종성’과 같은 보편적인 용어에 그쳤다. 이창헌, 최영희, 김효정의 네 개의 논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을 진행해 한글 합자 원리에 따른 다양한 모임꼴 글자들의 ‘부분 이름’에 대한 단어 대응을 살펴볼지 못했다. 더불어 접근할 수 없는 원문 이미지들의 한계로 인해 해당 논문들에서 해당 단어로 서술한 이유에 대한 연구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논문 연구자의 서술 관점 및 용어의 사용 기준에 따른 단어 사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진행하고자 한다.

두 분야의 교류가 더 원활해진다면, 방각판본 ‘한글 글자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한글 글자체’에 연구방식을 적용해 다학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형태 서지학과 한글 활자 디자인 연구 분야 모두 마이크로(micro)를 넘어 매크로(macro) 단위의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논의하는 기초학문이기에 이러한 상호 보완적 연구로 서지학, 역사학, 국문학, 예술학과 같은 인근의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이 분야의 기초 연구가 되어 후속 연구들과 인접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한영, (2013), 『안성판 방각본』, 참빛아카이브
- 김진평, (1983), 『한글의 글자표현』, 미친사
- 김진평, (1990),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한국출판연구소
- 류탁일, (1990),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 류탁일, (1981),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의 연구』, 문학사
- 이용제, (2022),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활자공간
- 이창헌, (2003), 『이야기 문학연구』, 보고서
- 김효정, (2002), 「한글소설 “구운몽” 서체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동욱, (1960),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서울과 역사』, 8호, 서울역사편찬원
- 김동욱, (1970),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1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동욱, (1973), 「방각본 소설 완판·경판·안성판의 내용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 61호
- 김명준, (2013), 「조선시대 글꼴의 변화 양상(1): 한글판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8호,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김진평, (1985), 「한글 글자체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논문집』, 14호, 서울여자대학교
- 노경희, (2022), 「고문헌 자료의 형태서지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물질성의 디지털화와 인문학적 해석」, 『한국문화 97호』, 97호, 울산대학교
- 유춘동·유우식, (2022),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판본 간에 나타난 목판인쇄 특징의 차이점 관찰을 통한 간행 연대의 추정」, 『보존과학회지』 38호, 제2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이용제, (2011), 「문장방향과 한글 글자꼴의 관계」, 『글짜씨』, 3호 2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 이용제, (2010),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활자, 글씨’ 쓰임새 제안」, 『글짜씨』, 2호 1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 이용제, (2016), 「네모틀 한글 조합규칙에서 당자 그룹 설정 방법 제안」, 『글짜씨』, 8호 2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 이용제, (2012), 「효율적인 한글 활자 디자인을 위한 대표 글자 연구」, 『글짜씨』, 4호 1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 이윤석, (2010), 「방각본 연구의 몇가지 문제」, 『열상고전연구』, 31호, 열상고전연구회
- 이윤석, (2022), 「나손 김동욱 교수의 방각이 연구」, 『근대서지』, 26호, 근대서지학회
- 이창헌, (1992), 「경판방각소설의 변이에 대한 연구」, 『인제논총』, 8호 2권, 인제대학교
- 이창헌, (2005),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刻字體) 소고」, 『민족문화』, 28권, 한국고전번역원
- 이창헌, (2007),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刻字體) 연구」, 『한국문학논총』, 45권, 한국문학회
- 이창헌, (2009),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 문화」,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 이태영, (2013) 「완판본의 개념과 범위」, 『열상고전』, 38호, 열상고전연구회
- 최영희, (2017), 「조선시대 부모은중경 한글판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동양예술』, 34호, 한국동양예술학회
- 최영희, (2019),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경판본과 완판본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42권, 한국동양예술학회
- 홍윤표, (2007), 「한글의 역사와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문헌적 가치」, 『국어문학』, 43호, 국어문학회
- 간기, 국립국어원 표준대백과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간기>
- 개각, 국립국어원 표준대백과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개각>
- 간행,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6429&searchKeywordTo=3
- 판본, 역주조선왕조실록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판본\(板本\)](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판본(板本))
- 형태 서지학,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https://www.kla.kr/dictionary?menuIds=5,27>